

서울아트가이드 Seoul Art Guide

Vol. 157
2015 01

9 772233 578106
ISSN 2233-5781

- ▶ 풍류기인 조자용과 대갈문화축제
 - ▶ 예술가가 필요할 때
 - ▶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 ▶ 한국 작가들의 해외 비엔날레 활동
 - ▶ CONTENTS p.22
 - ▶ Exhibitions of Editor's Choice p.84
- www.daljin.com

밀레 탄생
200주년
기념전

Museum
of Fine Arts
Boston

전시문의 1588-2618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

Millet,
Barbizon & Fontainebleau

2015. 1. 25 - 5. 10 소마미술관

주최
서울경제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한국일보 문화사업단
The Hankook Ilbo Cultural Project Cente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INSTITUT FRANÇAIS 주한미국대사관

미디어후원
NAVER

Exhibitions Review

미술평론가가 평가한 12월의 전시



이승원

손끝 세상이야기, 시저담화 11.27 - 12.24 보고재갤러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진화의 상징이자, 일상인 시저(손가락, 젓가락)는 각기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삶과 환경의 직접적이면서도 관습적으로 구체화된 시저의 근원에 주목하는 이 전시는 시저를 통해, 식문화에 대한 사유를 국내외 30인의 작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즉 식도구를 중심으로 현대 공예가들의 진지하거나 발랄한 사유가 장인의 고집과 함께 보여진다.



공예트렌드페어 현장

공예트렌드페어 : 공예온도 36.5 12.18 - 12.21 코엑스

올해로 9회를 맞은 공예트렌드페어는 '공예온도 36.5도'라는 주제 아래 실용과 감상의 두 가지 장을 통해 페어의 의미를 환기하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밀라노트리엔날레와 런던디자인페스티벌, 항저우 전시를 거쳐 한국전통공예 장인들의 작품이 선보이며, 해외초청관(영국공예청, 프랑스공예협회, 중화민국 전국산업총회), 창작공방관, 산업관/대학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갤러리관이 구성되어 '박람회'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박남희 | 미술평론가 arsnami@naver.com



정원

2014.10.21 - 4.2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동서양 회화, 조각, 공예, 비디오아트, 패블 등 미술의 전 장르를 아우르고 동서양의 작가들이 망라된 기획전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엄선된 작품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길이가 10여 미터에 이르는 통도사의 <패블 탕화>는 대중이 접하기 힘든 대작으로 감상하기 좋은 기회다.

통도사 석가여래 패블탱, 1767, 모시에 채색, 1,204×493cm



山韻-0901, 2009, 수묵목판, 400×160cm

김준권

12.10 - 12.29
아라아트센터

한국 목판화의 대표작가인 김준권의 회고전으로 그의 수인목판화를 총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80년대 민중미술 작가로 출발하여 수인풍경화의 경지를 개척한 김준권은 중국의 수인목판화를 깊이 연구한 끝에 한국 특유의 정서를 목판에 담아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했다.

윤진섭 | 미술평론가 yoonjs5@hotmail.com



4 Cities : Baghdad, Pyongyang, Seoul, Fukushima (detail), 2014. Show cases, pedestals, LED lighting, 113×45×45cm

이창원 : Shadow of Casters 2014.11.6 - 1.11 갤러리시몬

어두운 전시장에 들어서면 저 멀리서부터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흰색의 빛이 검은 틀에서부터 둥글고 네모나고 세모 혹은 하트의 모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건축물 앞에 서게 된다. 중세 고딕성당의 숭고함을 상기시키는 이미지들은 사실 각종 플라스틱 장난감과 소꿉놀이, 폐기물 등이 검은 틀에 박혀 내뿜는 빛이다. 숭고함과 비천함이란 우리 인식의 문제

임을 '틀'을 통해 확인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장-오귀스트-도미니크 앙그르(Jean-Auguste-Dominique Ingres), 목욕하는 여인(The Small Bather), 1826, Oil on canvas, 32.7×25.1cm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2014.11.25 - 3.12 예술의전당

해외 우수미술관의 소장품들이 국내 전시장을 메운지 오래되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워싱턴 필립스컬렉션에서 온 작품들은 저택과 같은 공간의 아우라를 떠나서 전시실에 작품으로만 위치한다. 신고전주의부터 미국의 새로운 미술까지의 잔잔한 산책길에서, 우리의 김환기를 만나는 재미가 있다. 서양미술사에 한국 현대미술을 위치시키기는 과제를 편치 않게 직면하면서도,

조은정 | 미술평론가 arthistorian21@hanmail.net



땅, 2013, Oil on canvas, 130×190cm

배병규

12.3 - 12.28
통인옥션갤러리

몇 해 전 고향 철원에 자리 잡은 작가가 고향의 풍경과 마주하면서 포착한 장면들을 솔직하고 투박하게 담아낸 풍경화 작품들을 보여준 전시이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이지만 작가가 처음 철원 풍경에서 느낀 감정은 낯설음과 고독함이었다. 그 낯가림을 해소하는 과정을 이번 전시에서 느낄 수 있다.

느낀 감정은 낯설음과 고독함이었다. 그 낯가림을 해소하는 과정을 이번 전시에서 느낄 수 있다.



Untitled 1304, 2013, Oil on canvas, 173×150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이광호

2014.12.16 - 1.25 국제갤러리

제주도 곳자왈의 겨울 숲을 극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작가의 대형 풍경화를 선보인 전시이다. 대형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묘사된 나무와 넝쿨이 뒤엉킨 숲에 흰 눈이 쌓여서 사각사각 눈 밟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어지럽게 엉켜있는 덩굴이 그려진 작품 앞에서는 마치 그 속에 작가와 우리가 갇혀 버리는 듯하다.

하계훈 | 미술평론가 hakyehoon@hanmail.net